

# “광주 청년예술가들 전국으로 잇는 가교 역할 하고 싶어”

예술플랫폼 ‘영택스’ 운영, 보컬리스트 박주영 씨  
개인 활동·문화 기획·아티스트 커뮤니티 형성 등  
지역 로컬자원 모티브 앨범 ‘양림동, 그 길’ 발매도

기타와 보컬, 하모니카와 드럼, 심지어 음악 믹싱부터 마스터링까지... 한 분야도 모자라 다양한 예술 세계를 섭렵해 가는 예술가가 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예술 플랫폼 ‘영택스’를 구축해 지역 신진예술가들이 공모를 지원할 때 노후를 공유한다. 사비를 들여 수도권 아티스트들과 커뮤니티를 구축하기 위해 백방으로 댄다. 그의 모습에서 ‘팔방미인’이라는 말이 떠올랐다.

최근 방문한 박주영(31) 보컬리스트의 작업실(서구 화정동)에는 믹싱 기계들부터 건반, 벽에 걸린 기타와 드럼 등 악기들이 가득 차 있었다. 등 뒤에 놓인 모니터에서는 복잡한 숫자들과 레버들이 보였다.

그가 말하는 자신의 음악관은 ‘책임감 위의 자유’. 한 우물을 파기보다 여러 장르에 도전해 온 그는 “모든 사운드는 음원에 수록할 때 부끄럽지 않을 정도로 완성시켜야 한다”는 나름의 원칙을 갖고 있다.

박 씨는 호신대에서 실용음악 보컬전공, 동 대학 교회음악대학원에서 보컬 전공으로 두 개의 석사학위를 받았다. 이후 전남대 대학원 문화학과에서 박사과정을 공부하면서 보컬, 음악을 비롯해 문화 전반에 대한 깊이 있는 탐구를 이어왔다.

“개인활동뿐만 아니라 문화기획과 아티스트 커뮤니티 형성에 에너지를 쏟고 있어요. 문화예술단체 ‘영택스’를 만들어 2022년까지는 광주·전남에서 공연을 기획했고 신진예술가들을 지원했죠. 또 서울과 제주를 비롯해 전국의 뮤지션들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도 맡아 왔어요.”

그가 관심있는 분야는 단연 ‘예술가 커뮤니티 형성 및 교육’. 꿈을 품고 예술가로 성장하려는 ‘에비 예술가’나, 이제 막 씬에서 발돋움해 나가는 루키들이 대부분 자기 분야 예술은 알아도 문화행

정은 잘 몰라 공모사업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박 씨는 문화예술행정을 전공하지 않았기에 자신도 처음에는 모르는 부분이 많았다고 했다. 문화예술 기관을 직접 방문해 문의하거나 담당자들에게 서류작성, 운영, 정산 등을 물으며 문제를 해결해왔다. 경험을 쌓기 위해 창작공간지원사업이나 청년예술인 간담회, 문화예술 정책간담회 등에 참여하며 식견을 넓히기도 했다. 이 같은 경험을 토대로 주머니 사정이 넉넉하지 않은 2-30대 청년예술인들에게 예술행정 관련 정보 등을 알려주고 있다.

동시에 그는 예술가로서의 성장을 위해 나름의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그동안 광주 ACC 월드뮤직페스티벌 참여를 비롯해 빛고를 아트스페이스 등에서 공연을 선보

였다. 양림동 피크닉지에서는 2018-19년 두 차례에 걸쳐 영택스 정기공연 ‘The Zero Hour’를 진행했으며, 보헤미안 소극장에서 밴드 ‘Floaty’, ‘라운’ 등과 협업해 관객들을 만났다.

그는 지난 2021년 지역 로컬자원을 모티브로 첫 앨범 ‘양림동, 그 길’을 발매하기도 했다. 이집션 작사가와 협업해 양림동만이 가지고 있는 따뜻한 감성을 노래에 입힌 것. 특히 2021년은 그가 양림동에서 활동한 지 10년이 되는 해였기에 더 뜻깊었다. 지난해 4월에는 사랑에 대한 감정을 서정적으로 표현한 ‘널 사랑하고 있어’를 발표하기도 했다.

박 씨는 “광주 공연계 예술가들 가운데는 ‘생활



보컬리스트 박주영이 지난해 11월 열린 공연 ‘시간은 음악을 타고’에서 노래를 하고 있다. <영택스 제공>

예술인’이 유독 많았다. 물론 예향의 도시인 만큼 전문교육을 받은 예술가도 적지 않지만 퇴직 후 인생 이모작을 꾸리거나 일상 속에서 예술을 향유하는 이들이 있다”며 “생활예술인에게 더 큰 관심과 지원이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당부의 말도 전했다.

“영상 포트폴리오 제작, 지원사업 공모 피드백을 비롯해 영택스가 제공하는 자체 홍보콘텐츠, 교육 등에는 단돈 100원도 받지 않아요. 광주 예술가 누구에게나 문을 활짝 열어두었으니 부담 갖지 말고 문을 두드리세요.”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김민재 작 '당신의 사랑에 키스하라'



이진상 작 '셸카'

## ‘현상의 형상’

김민재·이진상 2인전, 2월 25일까지 드영미술관

작가는 본질적으로 현실을 탐색하고 그것을 토대로 창작을 하는 이들이다. 탐색과 구현 사이에는 간극이 있기 마련인데 작가에 따라 그것은 천양지차로 발현된다.

작가는 어떻게 현상을 탐색하고 형상화하는가.

드영미술관(관장 김도영)이 진행하는 ‘현상의 형상’전(오는 2월 25일)에서는 그런 고민의 지점을 엿볼 수 있다. 신년 기획전으로 마련된 이번 전시는 김민재, 이진상 작가의 결과물이 어떻게 발현되는지를 관심있게 감상해볼 수 있는 자리다.

사전적 의미의 현상은 “사물이나 어떤 작용이 드러나는 바깥 모양새” 또는 “심리 작용의 매개에 의해 의식으로 발현되는 모든 것”을 말한다. 핵심 키워드는 바로 ‘작용’이다.

이번 전시에서는 그림으로 표현되기까지 작가의 내면에서 어떤 ‘작용’이 이루어졌고, 그것이 어떻게 구체적인 형상화의 단계로 이어졌는지를 유추해볼 수 있다.

김도영 관장은 “작가들은 다양한 현상과 이치에 주목해 자신만의 방식으로 대상을 들여다보고 탐색한다”며 “이번 전시는 탐색한 현상이 어떻게 구현되는지 가능할 수 있는 자리이자, 다채로운 현상의 세계에 대한 사유의 시간이기도 하다”고 말

했다.

김민재 작가의 ‘당신의 사랑에 키스하라’는 일반적인 키스에 대한 통념을 뛰어넘는 작품이다. 사랑하는 이와 키스하면 직접적인 입맞춤을 연상할 수 있지만 작품 속 남녀는 붉은 사과를 양쪽에 두고 입술을 댄다. 두 남녀의 육감적인 키스보다 붉은 사과를 탐하는 키스가 더 강렬하게 다가온다. 두 눈을 지그시 감은 채 사과를 매개로 상대의 입술을 ‘탐색’하는 연인들에게 사랑은 결실대 이르기까지의 지난한 여정임을 암시한다. 또한 그 탐색의 과정이 사과보다 더 더럽히고 매혹적이라는 사실도 은연중 말하는 것 같다.

반려동물을 모티브로 작업을 해온 이진상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도 동물들과의 감정 공유를 모티브로 한 작품을 출품했다. ‘닭’, ‘개’, ‘토끼’, ‘돼지’, ‘원숭이’ 등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동물들의 얼굴을 클로즈업한 그림은 저마다 개성 넘치는 표정으로 시선을 끈다. 반려동물의 의인화는 “반려동물을 사랑하지”는 구호보다 더 의미있게 다가온다. 아마도 작가는 오랫동안 일상에서 탐색한 동물의 표정에서 인간이 지닌 어떤 모습이나 표정까지를 포착했을 것이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전남문화재단 학술논문집 ‘전남문화재’ 22집 펴내

전남문화재단(대표이사 김은영·재단) 전남문화재연구소가 학술논문집 ‘전남문화재(全南文化財·사신)’ 22집을 펴냈다. ‘전남문화재’는 지역 향토사부터 고고학, 고대사 분야 등의 최신 연구경향을 소개해 온 논문집이다.

이번 호에는 목포대 김동일 도서문화연구원 학술연구교수가 중국 육황묘문화의 무덤 자료를 통해 피장자의 사회·생물학적 역할을 규명하고, 무덤에 부장된 선사시대 인간의 역할을 탐구한 논문 ‘육황묘문화의 무덤 피장자로 본 전도와 사회적 역할’이 수록됐다. 또 정용남(두류문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의 ‘경남 연해지역 요망에 대한 소고

에는 경남 연해지역을 정탐하는 데 활용했던 봉수(烽火)에 대한 연구 성과가 실려 있다.

전남의 문화자원인 나주 읍성에 대한 복원 연구를 망라한 ‘나주 읍성권역 문화유산의 복원 방안’은 전남대 김종순(호남학과 박사과정)의 글이다. 나주 역사문화도시를 정립해 나가는 과정을 도출한다는 취지에서, 나주목관아 등을 중심으로 고려~조선시대부터 현대까지 그 변모 과정을 추적했다.

김은영 대표이사는 “재단은 학술논문집의 등재 지원 등을 위해 온라인 논문투고 심사 시스템을 구축한 상황이다”며 “광주·전남지역 등은 물론 해



외 연구자들의 성과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플랫폼 역할을 맡을 수 있게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재단 문화재연구소 누리집에도 원문정보를 공개한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 ‘힐마 아프 클린트’ 앵콜 상영

오늘 광주극장...이숙경 큐레이터 코멘터리 영상도 상영

지난 2018년 뉴욕 솔로몬 구겐하임 미술관에서 열린 ‘힐마 아프 클린트 회고전’은 개관 이래 최대 관객을 동원하며 이목을 끌었다. 칸딘스키가 “추상화는 나의 발명품”이라는 선언 이전, 몬드리안이나 말레비치보다도 추상화를 먼저 시작했던 스웨덴 여성 화가를 다루면서 주목을 받았다.

초상화가 힐마 아프 클린트의 일대기를 그린 영화 ‘힐마 아프 클린트-미래를 위한 그림’이 코멘터리 상영회로 다시 돌아왔다. 22일 오후 1시 10분 광주극장.

이에 앞서 영화는 지난해 말 극장에서 선을 보였지만, 클린트의 예술적 가치와 관객들의 높은 관심으로 ‘앵콜 상영’이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영화는 클린트의 붓인되었던 1500여 점 작품과 2만6000여 페이지에 달하는 작품노트 등을 볼 수 있다. 독창적인 추상화 스타일로 예술계를 뒤흔들었던 그녀의 화풍도 스크린에 담겼다.

한편 이번 관람에 이어 이숙경 관장의 코멘터리 영상도 상영될 예정이다. 런던 테이트모던 수석큐레이터 등을 역임한 이 관장은 지난해 영국 휘트 위스 미술관 관장으로 선임됐다. 광주비엔날레 예



‘힐마 아프 클린트-미래를 위한 그림’

술감독을 거쳐 현재 베니스 비엔날레 일본관 큐레이터 등을 맡고 있다.

영화는 개봉 이후 CGV 골든에그 지수 97%, 메가박스 관람평점 9.2점을 기록했으며 네이버 평점 9.77점을 돌파하며 입소문을 탔다. ‘어 리틀 수 어 사이드’ 등에 출연했던 할리우드 디르스츠카 감독 작.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 아시아문화박물관 “문화재적 가치 높은 자료 기증하세요”

우편·이메일 상시 접수

국립아시아문화전당(전당장 이강현·ACC) 내 아시아문화박물관은 아시아의 문화와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보존하는 곳이다. 문화자원을 토대로 관람객들이 아시아문화를 접하고 이와 연계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아시아문화박물관이 문화재적 가치가 높고

연구, 전시 등 활용도가 높은 자료를 기증 받는다. 연중 상시 가능하며 우편, 이메일로 접수 받는다.

올해는 전통문화와 관련된 명절, 관혼상제, 축제, 놀이 등 자료 외에 전통의복, 음식문화, 전통 음악, 공예, 신화·설화, 건축 등 다양한 주제의 자료를 대상으로 한다. 기증받은 자료는 아시아문화박물관에 보존돼 기획전시회를 비롯해 연구, 문화사업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현재 아시아문화박물관은 인도네시아 전통 예술품으로 구성된 누산타라 수집품, 중앙아시아 키르키즈 민족의 카팜인 알라키지트 등 아시아문화를 엿볼 수 있는 자료 등을 보유 중이다.

이강현 전당장은 “기증품은 박물관 소장품 등록 후 영구보존되며 유물의 가치 등을 고려해 다양하게 활용될 예정”이라며 “아시아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많은 분들이 기증에 동참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건물·주택 지붕공사, 스틸방수, 리모델링

건축시공, 설계, 견적, 리모델링, 상담문의



갈라강관 지붕공사



건물 리모델링



전원주택신축

공장신축



옥상스틸방수



주택(외, 내부) 리모델링



징크판넬시공

창호(샷시)교체

MODERN **모던건설** 사무실 광주시 북구 자미로45(신안동) 공 장 광주시 서구 서원2길3(서원동)

시공문의 전상하 T. 062)531-3530, H. 010-9229-3530